

광주·전남 4·11총선 여론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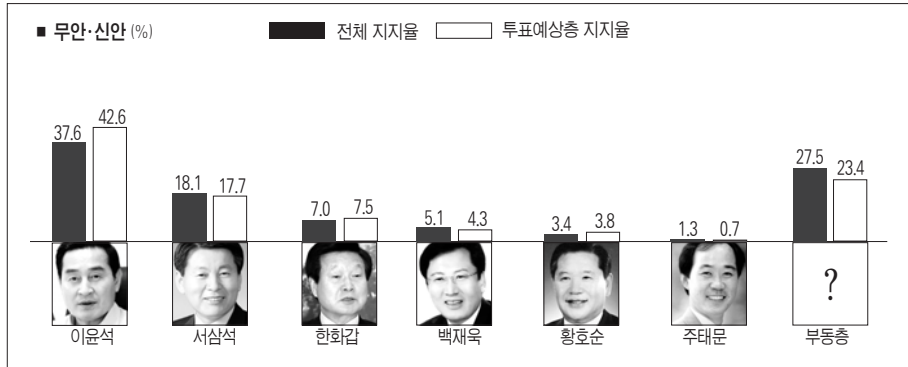
이낙연·이석형 최대 접전... 한화갑 고향서도 3위

이윤석 37.6%... 서삼석 신안지역 지지율 낮아

캐스팅보트 장성서 이낙연 12%P 앞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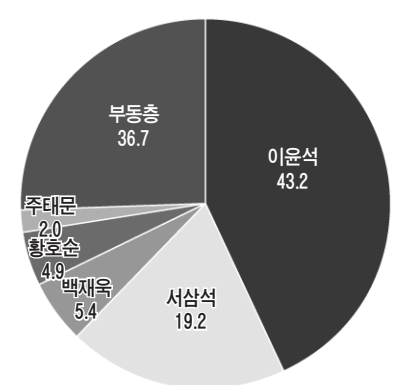
무안·신안

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무소속 출마로 선거구도의 변화가 예상됐지만 지난달 광주일보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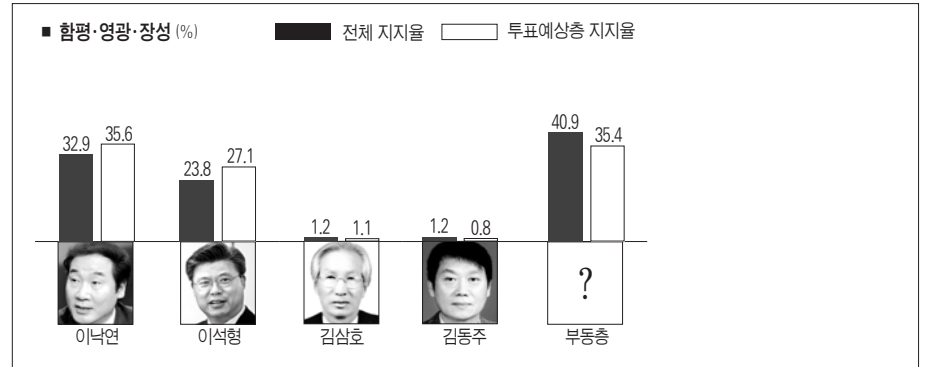
민중통합당 경선 지지도 조사에서 이 의원은 43.2%의 지지율로 19.2%의 서 전 군수와 격차를 더욱 벌린 것으로 조사됐다.

민중통합당 국민경선 지지도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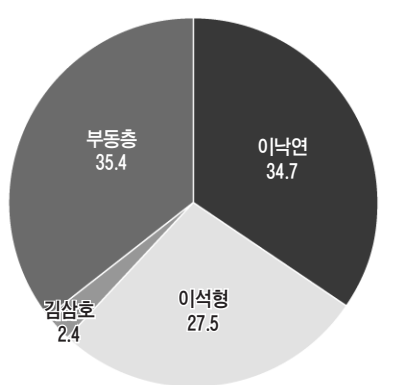
함평·영광·장성

4선을 노리는 현역 이낙연 국회의원과 3선 함평군수를 지낸 뒤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이석형 예비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이어 김삼호 전 김대중대통령후보 연설원과 통합진보당 소속인 김동주 북경대학 생 태상농연구수 학술위원장 위원이 1.2%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.

민중통합당 국민경선 지지도(%)



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장성에서는 이 의원이 31.9%, 이 전 군수가 19.7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

기초단체장 보선

조충훈 16.2%·이은 13.8% 접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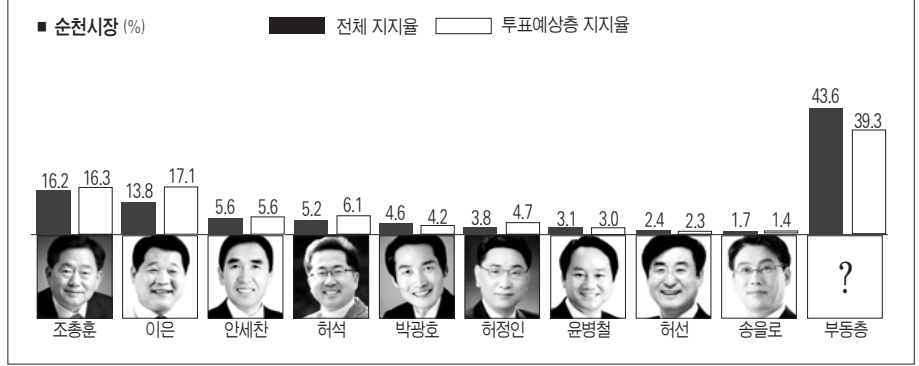
김철주·양승일 1%P 박빙의 싸움

강진원 54.4% 압도적 1위

순천시시장

순천시시장 보궐선거는 '2강' 구도로 나타났다. 전체 지지도에선 순천시장을 지낸 조충훈 후보가 16.2%의 지지율로 13.8%를 차지한 전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후보를 2.4%포인트 앞선 것으로 파악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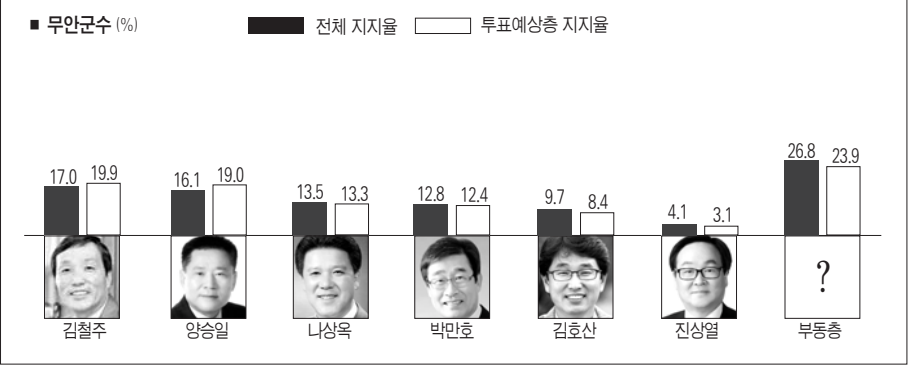
국민경선 지도도에서도 조 후보(16.5%)가 이 후보(13.4%)를 3.1%포인트 앞섰다. 그러나 투표 예상치 지도도에선 1·2위 순위가 뒤바뀌었다.



무안군수

서삼석 군수가 4·11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무안군은 전남도의원 출신 두 후보가 초반의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이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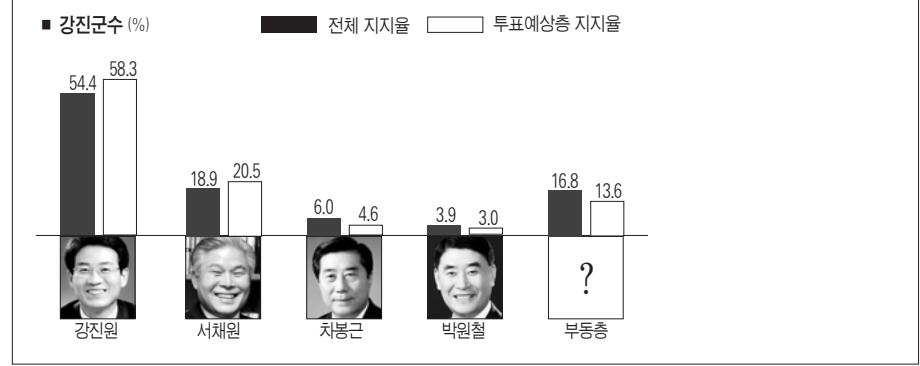
투표 예상치 지도도에서도 김철주 후보(19.9%)와 양승일 후보(19.0%) 간 격차는 똑같았다. 연령대별로 보면 김 후보와 양 후보는 40대, 나 후보는 50대 이상, 박 후보와 김철주 후보는 30대, 진 후보는 19세 이상~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.



강진군수

강진군수 보궐선거는 '1강 1중 2약' 구도로 나타났다. 전체 지지도에선 전남도 기업도시 기획단장을 지낸 강진원 후보가 54.4%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1위를 달렸다.

지역별로는 1선거구(강진읍·도암·성전·신전면)와 2선거구(군동·대구·마량·병영·울천·작전·칠광면)간 후보별 지지도 편차가 비교적 고른 것으로 확인됐다.



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

Table with columns: 사건번호, 물건번호, 소재지 및 면적, 용도, 감정평가액, 최저매각가격, 비고.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.

Table with columns: 사건번호, 물건번호, 소재지 및 면적, 용도, 감정평가액, 최저매각가격, 비고.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.

● 고된 부동산의 현재 표시는 실례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※ 특별매각조건: 본지법정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요하는 최고가매수인까지 매각경쟁이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매각대금에 산입한다.

2012. 2. 15.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용민